

일본정부, 2011년도 경제전망 발표

12월 22일 일본 내각부의 발표에 따르면, 2011년도 일본경제는 정부지출 감소 및 수출증가 둔화로 1.5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 또한 내년도에 성장과 고용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, 이를 위해 법인세율 5% 인하, 고용촉진세제 창설, 규제·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도입할 방침임.

- 일본 내각부는 12월 22일 「2011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」를 발표했는데, 이에 따르면 내년도 일본경제는 1.5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.
 - 2011년도에는 정부지출 감소 및 수출증가 둔화로 2010년(3.1%) 대비 감속 전망
 - GDP의 58%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(0.6%) 예상
 - 기업설비 역시 회복세가 지속(4.2%)될 것으로 예상
 - 수출은 해외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전제로 6.2% 증가 전망
 - 실업률은 하락(4.7%)이 전망되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
 - CPI는 GDP(수급)갭의 축소에 따라 0.0% 예상

〈표〉 주요 경제지표

(단위: 전년대비 %)

	2009	2010	2011
실질GDP성장률	-2.4	3.1	1.5
민간최종소비지출	0.0	1.5	0.6
민간기업설비	-13.6	4.9	4.2
수출	-17.9	15.8	6.2
내수기여도	-2.7	1.9	1.0
외수기여도	0.3	1.2	0.5
실업률	5.2	5.0	4.7
소비자물가지수	-1.7	-0.6	0.0

주: 1) 회계연도(당해년 4월 ~ 차년도 3월) 기준, 2) 2010년과 2011년은 각각 예상치와 전망치임.

3) 내년도 세계경제 3.2%, 엔환율 82.4엔을 전제.

자료: 内閣府(201.12.22).

□ 이 보고서에서는 2011년도를 신성장전략(2010.6 발표)의 ‘본격 실시 원년’으로 규정하고, ‘성장과 고용’에 중점 둔 경제정책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힘.

-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, 국내투자확대, 고용창출을 위해 법인세 5% 인하 및 중소기업 법인세의 경감세율 3% 인하, 고용촉진세제 창설, 저탄소·에너지절약 투자에 대해 세제우대 등 실시
- 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해 다양한 규제·제도의 개선 추진
- 과도한 엔고 진행·장기화에 대해서는 필요시 외환시장 개입 단행

〈참고자료〉

内閣府(2010.12.22)